

교회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때 ...

[짧은 말씀 묵상집 (37)]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거짓된 목사들

거짓된 목사들은 최악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나쁜 길에 빠져들게 하는 거짓되고 쓸모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2:14, 현대인의 성경).

"괴로운 행복"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불러 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한 바룩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바룩아, 너는 ‘아, 괴롭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까지 더하셨으니
내가 탄식하다가 지쳐 평안을 얻지 못하였구나.’하였다”
(예레미야 45: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의 탄식과 절규인 로마서 7 장 24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현대인의 성경) “아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난 말씀은 작년 12 월 14 일에
갑자기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친구 익순이의 어머님께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신 메시지 중에 “괴로운 행복”입니다.
그리고 방금 생각난 것은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입니다:
(1 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짓밟힌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 절) 힘이 없고 내 맘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후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을

거짓말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들을 대적하고, 자기들에게 해로우며

또한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43:1-4, 7, 현대인의 성경).

교만한 사람은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심히 교만하여 마음이 아주 거만해서 거드럭거리고

뽐내며 자만하고 잘난 척하여도

교만한 사람은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8:29-30, 현대인의 성경).

교회 안에서 맛있는 영적 음식을 먹던 자들

교회 안에서 맛있는 영적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 밖인 거리에서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았나요?

(참고: 예레미야 애가 4:5, 현대인의 성경)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51:5, 현대인의 성경).

교회가 괴로운 처지에 빠진 것이 아닌가요?

교회의 예배당이 처량하게 되었고,

기독교 명절이 되어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없고,

모든 교회의 문들이 적막하게 되었고,

목사님들은 탄식하며 성도님들은 근심하니

교회가 괴로운 처지에 빠진 것이 아닌가요?

(참고: 예레미야 애가 1:4, 현대인의 성경)

교회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때 ...

교회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울면서 함께 돌아와 우리의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물어 그리로 향할 것이며

잊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50:4-5, 현대인의 성경).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은 ...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쳐도 자기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50:7, 현대인의 성경).

교회의 어린 아이들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구하지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예레미야 4:4,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6:48).

교회의 영광이 다 떠나 버린 것은 아닌지요?

혹시 지금 교회의 영광이 다 떠나 버린 것은 아닌지요?

교회의 목사님들은 꼴을 얻지 못해 기진 맥진하여 있지 않나요?

(참고: 예레미야 애가 1:6, 현대인의 성경)

교회의 젊은이들이 순금처럼 소중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순금처럼 소중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흔한 질그릇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4:2,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양떼들을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사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껏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는 그들의 죄를 찾아도 없을 것이며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50:17-20, 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고통 자체가 괴로운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던 날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고통이요,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나를 내버려 두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1:12-13, 현대인의 성경).

그들로하여금 어리석은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혜로운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치시사

그들로하여금 어리석은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50:35-36, 현대인의 성경).

그들을 반겨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떠나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는 그들을

반겨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예레미야 애가 4:15,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빼돌어진 마음과 잘못된 요구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시드기야왕은 그 고관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그(예레미야)가 너희 수중에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
나는 너희를 막을 수가 없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 38: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생각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조사해 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죄나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4, 14,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 사실 이 사람(예수님)은
죽을 짓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15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매질하여 놓아주려고 했습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20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22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쳐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23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24 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빌라도 총독이나 시드기야왕이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빼돌어진 마음과 잘못된 요구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만일 목사가 묵회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빼돌어져 있고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올바른 참 성도 한 명을 충분히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성도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50:29,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2:6).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2:11-12, 현대인의 성경).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1:3, 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종이 교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너희가 반드시 싸워 이기리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한 ‘너희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32:5, 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이다"
(예레미야 40:3, 현대인의 성경).**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로니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그를 풀어준 후에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재앙을 선언하시더니

이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이다”

(예레미야 40: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로사리아 버터필드가 쓴 “복음과 집 열쇠”란 책에 써 있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것은 자아에 대한 죽음이요, 육신의 정욕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글입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든 생각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참고: 37:15, 21)

또는 자유를 누리고 있든지(4 절; 40:1)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든 생각은,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나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불순종하는 요나 선지자에게 불신자 선장을 통해 그에게 “일어나”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요나 1:6)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미 “일어나”(2 절)라고 명하셨음].

마지막 넷째로 든 생각은, 불신자 사령관 느부사라단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선언하신 재앙을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예레미야 40:3)는 것과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3 절, 현대인의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면서도(1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행실을 고치며 하나님과 재물(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보내시사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행실을 고치며 하나님과 재물(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35:14-15, 현대인의 성경).

돌아올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평탄한 시냇가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1:9, 현대인의 성경).

동서남북으로 갇힌 바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이디오피아 사람 예벳-멜렉에게 가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어라.
'나는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그 말이 네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39:15-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1) 비록 주님의 종이 동서남북으로 갇힌 바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임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실제로 저는 가정 사역에 있어서 큰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시편 63:3; 베드로전서 5:10)을 받았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비록 이디오피아 사람 예벳-멜렉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에 내리 시켰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그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저의 경우는 마땅히 저는 제가 보는 앞에서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할지라도 ...

비록 제 입의 모든 설교 말씀과 제 마음의 말씀 목상(참고: 시편 19:14)을
듣거나 또는/혹은 읽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그 말씀들을 다 그들의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에 들어 저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36:24-26, 현대인의 성경).

못마땅한 일들이 목회에는 비밀비재할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6:11; 38:4, 현대인의 성경).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26:11,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했고,
고관들은 시드기야왕에게 “이 사람을 죽어야 합니다”(38:4,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여러분들도 다 들었겠지만
이 사람은 우리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자입니다 ...”(26:11, 현대인의 성경),
“... 그가 이 성에 남아 있는 병사들과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백성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을 해치려고 합니다”(38:4,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 이것은 여호와와 말씀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사람에게 항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며
적어도 목숨만은 건지게 될 것이다”(1 절, 현대인의 성경).
도우려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여
그 사람을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못마땅한 일이
목회에는 비밀비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벌하셔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벌하셔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예레미야 애가 4:22)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찰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참고: 이사야 53:5, 6, 10).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만한 사람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덫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피하는 교만한 사람은 함정에 빠질 것이며

함정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이 벌받을 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8:29, 33, 43-44, 현대인의 성경).

마음이 변하여 다시 죄의 종 노릇을 한다면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죄의 종 노릇을 더 이상하지 않고 자유인답게 살다가
마음이 변하여 다시 죄의 종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죄에게 종살이를 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예레미야 34:10-16,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우리가 대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5:17,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켰다면 ...

만일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켰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건물을 없애 버리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32:31,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계속 행하면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계속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인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4:28-29, 현대인의 성경).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노의 구름으로 덮어 버리시면 ...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노의 구름으로 덮어 버리시면

교회의 영광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것이며 교회의 지도자들도 욕을 먹을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2:1-2, 현대인의 성경).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유

제가 기록해 놓은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동영상(YouTube)과

글로나마 인터넷(email, Facebook,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스토리, 카카오톡,

교회 웹사이트, 구글 블로그)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이유는

물론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이지만

또한 혹시나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사

그들의 믿음도 성장케 하여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죄들을 깨닫고

그 최악 된 길들에서 돌아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6:6-7, 현대인의 성경).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야 합니다.

시드기야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

나에게 조금도 숨기지 말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왕에게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분명히 나를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조언을 한다고 해도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왕은 몰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나는 너를 죽이지 않고

네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지도 않겠다.”

그 때서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왕에게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왕에게 하신 말씀을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바빌로니아 왕의 대신들에게 항복하면

네가 죽지 않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며 네 가족도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이 성에 불을 지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 38:14-1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1)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조금도 숨기지 말고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2) 주님의 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참고: 에스겔 2:5, 7; 3:11).

(3) 주님의 종은 사람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다 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존경?

혹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않고

장로님들을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예레미야 애가 4:16, 현대인의 성경)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죄 때문에?

혹시 지금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죄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예레미야 애가 4:13, 현대인의 성경)

목사도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 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밧줄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8: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요나 2:1, 현대인의 성경)한 내용을 보면

그는 “바다 깊은 곳”(3, 5 절, 현대인의 성경),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습니다(6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9 절,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주님께서서는 요나 선지자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 내셨습니다(6 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도 구해 내신 주님께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 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궁중 내시 이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을 사용하시사

그로 하여금 시드기야왕에게 가서 “폐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성 안에 빵이 다 떨어졌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시므로

시드기야왕은 에벳-멜렉에게 “너는 30 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우물에서 끌어내어라.’ 하고 명령하”였으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힌 바 되었던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예레미야 38:7-13,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종인 목사도 구덩이나 바다 깊은 곳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은 충분히 그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며 소망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너트려 주신 후에 철저하게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부서트려 주시고 무너트려 주신 후에

철저하게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1:28, 현대인의 성경).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데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것인 데도 불구하고) 결정하여

그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고집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2:13-17, 현대인의 성경).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2:17, 현대인의 성경).

반드시 이행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할 날이 올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3:14, 현대인의 성경).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들에 대하여 계획하신 것과 그들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50:45-46, 현대인의 성경).

밤새도록 슬픔에 흐느껴 눈물이 뺨을 적셔도 ...

밤새도록 슬픔에 흐느껴 눈물이 뺨을 적셔도
사랑하던 사람들 중에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1:2, 현대인의 성경).

사랑의 징계를 통한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집트로 간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왕을 도구로 사용하시사
이집트를 공격하여 죽일 자는 죽이고 생포할 자는 생포하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수많은 신전에 불을 놓아 그것들을 태우고 신상을 가져갈 것이며
헬리오폴리스의 주상을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3:7-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보다 어려모로 힘이 센 불신자들도 사용하시사
불순종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징계를 통해
우리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지금 우리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지런히 가르치셔도
주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의 성전에 “더러운 우상”을 세워서
성령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예레미야 32:33-34; 고린도전서 6:19, 현대인의 성경)

소동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지 않나요?

혹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죄가
성경에 나오는 소동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지 않나요?
(참고: 예레미야 애가 4:6, 현대인의 성경)

쉴 곳도 없고 평안도 없이 궁지에 몰려 살아갑니다.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여러모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쉴 곳도 없고 평안도 없이 궁지에 몰려 살아갑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1:3, 현대인의 성경).

신실하지 못한 교인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의뢰하고(믿고) ...

신실하지 못한 교인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의뢰하고(믿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그들 사방에서 그들에게 오게 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9:4-5, 현대인의 성경).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범죄한 나라는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세계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50:12, 14, 현대인의 성경).

알아볼 수 없게 되지 않았나요?

이젠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게 되지 않았나요?

(참고: 예레미야 애가 4:8, 현대인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를 돕는 자가 없을 때 ...

어디를 보아도 우리를 돕는 자가 없을 때

(참고: 예레미야 애가 1:7, 현대인의 성경)에야 말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참고: 시편 121:1-2, 현대인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을 때 ...

어디를 보아도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을 때

(참고: 예레미야 애가 1:9,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4:1)

우리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사야 66:13, 현대인의 성경),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시며

(고린도후서 7:6, 현대인의 성경)

또한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1:4, 현대인의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위로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견뎌내야 할 뿐만 아니라

(참고: 6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4 절, 현대인의 성경).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슬픔과 바다처럼 깊은 상처 입는 사람에게 ...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슬픔과 바다처럼 깊은 상처 입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 예레미야 애가 2: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려다가
오히려 그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욥기 16:2, 공동번역).

어쩌면 주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교회를 ...

어쩌면 주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교회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약하게 하시사
그들이 그 교회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참고: 예레미야 49:15, 현대인의 성경).

언행일치가 안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은 결국 제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랴와 요하난과 그 밖의 모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선동해서 자신들을 대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집트로 가면서 바룩도 같이 갔습니다
(예레미야 43:1-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교만한 사람들의 말(바룩이 예레미야를 선동해서 자신들을
대적하게 한다고 말했는데)과 행동(바룩도 거느리고 이집트로 함께 갔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은 결국 제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책망입니다.

온 세계가 듣고 두려워하며 떨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원천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좋은 일과
베푸신 풍성한 축복과 번영에 대하여
온 세계가 듣고 두려워하며 떨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3:9, 현대인의 성경).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게
'어째서 것처럼 그 악을 행하여 나의 분노를 일으켜서
재앙을 자청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려고 하느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참고: 예레미야 44:7-8, 현대인의 성경).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사탄의 나라의
모든 최악된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 버리는 일들을 목격하는 우리는
졸지에 넘어져 멸망할
사탄의 나라의 것들을 흠모해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예레미야 51:7-8, 현대인의 성경).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51:9, 현대인의 성경).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44:9-10,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고생과 시련의 담으로 둘러 쌓여 있으므로 말미암아
무거운 쇠사슬과 같은 마음의 짐들까지도 지고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을 때 ...

우리가 고생과 시련의 담으로 둘러 쌓여 있으므로 말미암아
무거운 쇠사슬과 같은 마음의 짐들까지도 지고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3:5, 7, 8, 현대인의 성경).
과연 그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참고: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가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과연 그 때 우리는 이사야 59 장 1-2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과 질병과 기근에서 죽는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거부하고
다시금 죄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과 질병과 기근에서 죽는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4:17,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 ...

우리가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속였고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가 주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이처럼 번민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1:19-20,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큰 위기로 인하여 동서남북 갇힌 바 되었을 때 ...

우리가 큰 위기로 인하여 동서남북 갇힌 바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3:1-4,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헐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삼으시고 뽑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2:1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주목합니다.

베드로후서 1 장 11 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모는 나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히 11: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6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골 1:13,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마 6:33).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벧후 1:10).

그리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10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1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사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정당하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지만

금홍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 내시고

회복시키시사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6:27-2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온갖 지혜를 가지셨으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32:1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쓸데없는 도움을 바라다가 우리 눈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구원하지도 못할 사람에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도움을 바라다가 우리 눈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4:17,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요 4:24)은 영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롬 1 6:26).

영원한 생명이신 성자 예수님도 영원하십니다

(요일 1:1-2).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 9:14).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이 영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히브리서 5 장 9 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8-9 절).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9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주목합니다.

요한계시록 14 장 6 절을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롬 1:2).

복음이란 예수님의 탄생(3 절),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4 절).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마 1:18).

성령으로 잉태되신 후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롬 1:4).

그리고 사흘만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4 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바로 복음입니다(3-4 절).

이 복음을 사도 요한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계 14:6).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요일 1:2; 참고: 롬 16:26).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1 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16 절).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14 절).

과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주목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왕상 10:9).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므로(요일 3:1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 5:8).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인간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맺으시므로(갈 5:22)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케 하시며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케 하고 계십니다(마 22:37, 39).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시 63:3).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요일 2:25, 현대인의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요 3:16)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롬 14: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주목합니다.

히브리서 9 장 12 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란 히브리어 “카파르”와 헬라어 “카탈리게”를 번역한 말로 “덮다”,

“제하다”, “허물을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인터넷).

성경에서 “속죄”란 할 때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죄를 속하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는 바로 “속죄제”(sin offerings)였습니다.

이 속죄제의 목적은 죄사함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인터넷).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능력) 아래 놓였었습니다(롬 8:2).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기에(5:10)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화목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 이신 “자기 아들”(8:3)을

그 속죄제물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김창세).

이젠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이루시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히 9:12).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13-14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옛) 언약 아래서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15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합니다.

고린도후서 4 장 17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걸 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지만(요 16:3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이 고난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으로 여깁니다(고후 4:17,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롬 8:18,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모든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딤후 2:1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며 모든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을 주목합니다.

예레미야 10 장 10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온 세상이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10 절, 현대인의 성경).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 24:10, 현대인의 성경).

그 분은 의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십니다(히 7:2, 현대인의 성경).

그 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시 47:2,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가장 높으신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빌 2:7-8, 현대인의 성경).

영원한 왕이시요(렘 10:10) 영원한 생명(요일 1:2)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서

저주의 나무(신 21:23; 갈 3:13)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죄명이 적힌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막 15:26, 현대인의 성경).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였고 함께 못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막 15:31-32, 현대인의 성경).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분을 외면하고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사 53:3-5,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서 낮아지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므로 말미암아(마 20:28)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골 1:14)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벧전 2:9,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복음성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딤후 6:15, 새번역).
정한 때가 오기 전에 사도 요한이 본 열 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며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주들의 주님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것이며
또 부름을 받고 선택된 진실한 신자들은 그분과 함께 이길 것입니다
(계 17:12-14,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길이길이 존귀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딤후 1:17,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모든 의로운 법을 주목합니다.

시편 119 편 160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주의 모든 의로운 법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의로운 진리의 말씀과 법을 주목하여
그 말씀과 법을 사랑하므로(163 절) 주야로 묵상하며(시 1:2)
또한 그 말씀과 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고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119:44).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주목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 16-17 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시 77:2).

야곱도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였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를 받지 않을 정도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창 37:35).

우리도 사랑하는 식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고후 1:3)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위로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후 1:4)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6 절)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4 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되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7:6).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죽은 자들로 인해

애통할 때에 소망 없는 비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 5:4; 살전 4:13-18).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욘 15:11).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시 119:50).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위로로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목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전 8:15,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웬지 우리는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6:3, 현대인의 성경).

즉,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비옥한 땅과 포도원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말입니다.

모든 즐거움의 소리가 그친 것 같습니다

(사 16:10, 현대인의 성경, 참고: 렘 48:33, 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만 것만 같습니다(욘 1:12,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모든 즐거움의 소리가 그친 이유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며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 15:13, 17:22, 현대인의 성경).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눈 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전 7:4, 현대인의 성경).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겔 21:10, 현대인의 성경).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은 다 순간적입니다(욘 20: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사 58:1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시 35:9,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105:3,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6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먹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렘 15:16,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교훈과 법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시 119:24, 7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잠 2: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사 35:10,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자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51:1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원한 축복들을 주목합니다.

시편 21 편 6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1-2 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사(1, 5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영광이 한층 돋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성과 위엄도 주십니다(5 절,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엡 1:3,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요일 3:1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지
이 세상의 순간적이고 다 없어질 축복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시편 111 편 10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150: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스 3: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시 135: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단 2:2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시 145: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68:1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71:23, 현대인의 성경).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에

우리는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눅 1:6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강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 148:1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창 14:20,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주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시 119:17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103: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해야 합니다(56:1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71:14,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63:3,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117: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41:13; 115:18, 현대인의 성경).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113:2,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146:2, 참고: 104:3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44:8, 현대인의 성경).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145:1, 현대인의 성경).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대상 29:13,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10 절, 현대인의 성경).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복음성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고: 시 103:1, 2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어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로할 사람이 우리 곁에 없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사람은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1:16-17, 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3:40-4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가 젊었을 때 지은 죄로 창피해서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난 후에 곧 뉘우치며 깨달은 후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젊었을 때 지은 죄로 창피해서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31:1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6 장 4 절 하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우리의 사랑은 잠깐 보이다가 일찍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결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은 사랑을 주목하면서

부부 관계나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짜 사랑(God's eternal authentic love)이 아닌

일시적인 가짜 사랑으로 식구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러한 사랑은 우리 마음에 오래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우리 마음에서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 장 14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 6:25, 31,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32 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우리는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10:39, 현대인의 성경; 참고: 16:25,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 생명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막 8:35,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행 20:24).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권세를 주목합니다.

다니엘 4 장 34 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30 절)
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난 소리는
“느부갓네살왕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의 왕권은 너에게서 떠났다.
네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였습니다
(31-32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고
7년이 다 지났을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그의 정신이 되돌아와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에게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34 절, 현대인의 성경):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34 절).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7:13)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셨으므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14 절).
주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로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요 주님은 이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요 17:2).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영원한 권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사모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사모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행하므로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 풍족하게 살며
재앙 같은 것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그 쓴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4:12-1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주목합니다.

로마서 1 장 20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에 대하여 알 만한 것을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해졌습니다(18-19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20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 68:34, 현대인의 성경).
모든 세대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 있는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145:4, 현대인의 성경).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 4:2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십니다(엡 3:20, 현대인의 성경).
 그 주님께 우리는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이 크시니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크신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21:13,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의 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89: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주님의 큰 능력과 힘으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신 9:2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며 주님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느 1:10,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고후 6:7, 현대인의 성경).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과거의 모든 시대로부터 현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유 1:25,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네 손의 사슬을 풀어서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기를 원한다면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보살피 주겠다.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좋다.

자,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

너는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라에게 돌아가 그와 함께 백성들과 같이 지내든가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식량과 선물까지 주면서 그를 가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40:4-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실히 대언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도 갇히고

심지어 쇠사슬에 묶이기도 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죄의 종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1).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8,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3:7,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부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48:7, 현대인의 성경).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10 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1: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주목합니다.

에베소서 3 장 11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로운 계획”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3 절, 현대인의 성경).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5 절, 현대인의 성경).

비밀에 속한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6 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7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주목하여 그 계획이 이미 하늘에서 이뤄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뤄지길 기원합니다(마 6:10).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주목합니다.

고린도후서 5 장 1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시고(엡 1:4)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2:8)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시 135:12; 요 3:15-16).

그 영원한 선물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롬 6:23, 현대인의 성경).

즉,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셨습니다

(딤후 2:10,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은(롬 16:26)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시 139:2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렘 3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벧후 1:11).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고후 5:1,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엡 3:11,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시 21:6,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입니다

(사 35:10, 51:11, 현대인의 성경).

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슬픔의 날들이 끝날 것입니다(60:2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옛날의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1:7,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흉한 소문은 바다에 파도가 일듯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49:23,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2:24,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실 마음과 준비가 되 있으신 데
다만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모든 재앙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싶어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돌아설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 절망까지 됩니다(참고: 예레미야 36:3,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누가복음 17: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3:26,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명성과 우리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속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9: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아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사탄과 그의 세력이 우리를 아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7:9,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계약은
자유를 선포하여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4:8,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기적과 크신 능력과 두려움으로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2:21-22,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외면하시지만
주님의 때에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쳐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전처럼 다시 세우실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 범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죄와 반역 행위를 용서해주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3:4-8,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니 ...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시사 우
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불안을 주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50:34,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빼앗기고 우리가 행복을 잊어버렸을 때 ...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빼앗기고 우리가 행복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충분히 '내 힘이 쇠약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내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쓰라린 고통과 역경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만해도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하신 그의 자비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는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에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내 희망을 그분에게 두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3:17-24,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

우리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우리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혹시 우리의 죄가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신 것은 아닌지요?
(참고: 예레미야 애가 1:5,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를 일일이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를 일일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넘어트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4:18-20,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종류의 멍에를 지게 하시므로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1:14,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힘을 조금은 남겨두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징계로 자녀들인 우리의 힘을 꺾어 버리실 때에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힘을 조금은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2:3,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 1:9).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나약해지고 우리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으며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나약해지고 우리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15-17,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나 여호와와의 복수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 여호와와의 복수이다”
(참고: 예레미야 50:15, 현대인의 성경).

장래의 소망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31:17).

"재앙의 날"에 "멸망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멸망의 바람”을 일으키시사
바빌로니아와 같은 사탄의 나라를 치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51: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여태까지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면서
여태까지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36:2, 현대인의 성경).

전에 우리를 높이던 사람이 ...

전에 우리를 높이던 사람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우리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1:8, 현대인의 성경).

젊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의 멍에를 메게 하신 것은 ...

젊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의 멍에를 메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서
잠잠히 기다림으로 인내를 가르쳐 주시며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3:27-28, 현대인의 성경).

제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

제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제가 숨질 때 되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참고: 시편 1:2) 적어 내려간 그 말씀 묵상의 글들을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36:27-28, 현대인의 성경).

조롱 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조롱한 교만한 사람들은 조롱 거리가 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8:26-27).

조상들의 범죄로 우리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

조상들의 범죄로 우리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참고: 예레미야 애가 5:7, 현대인의 생각)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참고: 로마서 6:23,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시드기야왕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만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그 유대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말한 대로 왕은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며 왕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이 항복하기를 거절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
(예레미야 38:19-2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종은 먼저 자신이 주님께 항복해야 한다는 교훈과
더불어 성도들에게도 주님께 항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담대히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슬픔을 주셔도 ...

주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3:32-33,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어째서 우리를 잊으시며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며 주님의 보좌는 대대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째서 우리를 잊으시며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하소서

(예레미야 애가 5:19-21,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3:10).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소서’라고 선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31:7,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면 내가 돌아갈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1:18,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오래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님(히브리서 13:8, 새번역)은

오래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일을 계속 행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크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예레미야 32:20,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다시 세우심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1:4).

주님은 지쳐있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피곤한 사람을 상쾌하게 하시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참고: 예레미야 31:25,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교회가 회개치 않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으로 갇힌 바 될 정도로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

주님의 교회가 회개치 않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으로 갇힌 바 될 정도로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참된 주님의 종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하므로 말미암아

그 또한 동서남북으로 갇힌 바 될 정도로 포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32:2-3,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뜻이 계시면 ...

주님의 뜻이 계시면 제가 나누는 모든 (설교) 말씀 묵상들을
듣고 또한/또는 읽은 주님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 은혜 받은 말씀들을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36:13,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이유?

어쩌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33:5).

참된 주님의 종

참된 주님의 종은
그가 들은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32: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할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맞설 목자가 누구입니까?

(참고: 예레미야 50:4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우리는 듣지 않고

여전히 탐심(지난치 욕심)이란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의 악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44:2-6; 골로새서 3:5; 누가복음 18: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여기저기 흩어버리신
주님의 교회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뜻을 주셔서
자신들과 그 후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할 것이며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시며 또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주님의 나라에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2:37-4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참고: 예레미야 애가 1: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참고: 출애굽기 3:7,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할 때"에 ...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게 도망하여
우리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복수할 때”에
죄를 범한 사탄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행한 것만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51: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온 인류의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천지를 만드신 주님은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32:17, 2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보다 강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보다 강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들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물 댄 동산 같아서 다시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춤을 추고 기뻐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돌이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근심 대신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31:12-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42: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걸려 넘어질 것이며

그들을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벌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50:31-3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모르실리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르실리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악한 행위와 더러운 소행을 다 아시고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만일 그 때가 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탐심(지나친 욕심)이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4:21-2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치욕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모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피곤하나 쉴 수가 없으며,
먹고 살려고 상관들에게 굴복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치욕을 살펴보십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5:1, 5-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이 죄악 된 세상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빌로니아와 같은 이 죄악 된 세상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적의 목표물에 백발 백중으로 쏘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앞장서서 이 세상의 죄악 된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50:8-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3:25-2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탄과 그의 세력의 칼날을 피한
성도들은 은혜를 얻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서는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1: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결심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걷고자 할 때에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그 잘못된 길로 걸으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행함의 결과인
인생의 쓴 맛을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42:19-2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참고: 예레미야 31:34).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덩이에서 죽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준
유다왕 시드기야의 환관 이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예레미야 38:7-13)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그가 보는 앞에서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벳멜렉에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칼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피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39:16-1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잠언 3장 5-6 절 말씀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3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기뻐하시는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꾸짖긴 하시지만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1:2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종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37:4, 15, 2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할 때 주님의 종은 그에게 또 다시 ‘회개하라’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가
또 다시 주님의 종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할 때
주님의 종은 그에게 또 다시 ‘회개하라’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의 종은 그 형제가 기도를 부탁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이유는 고통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7:1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을 맡은 주님의 종으로서 ...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을 맡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하는 설교를 하기보다
(참고: 디모데후서 4: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전하되
(참고: 예레미야 36:4,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그 말씀이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며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과 더불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모든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다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31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길 후손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5:1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조상들이 순종한 것처럼 ...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조상들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도 평생 지키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35:8-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처럼 되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인도하여
이 최악 된 세상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들은 여기 저기 헤매다가 쉼 곳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사탄의 세력들은 그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참고: 예레미야 50:6-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후에라도 ...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후에라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2:23; 마태복음 22:3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징계?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그 도움의 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애가 2:3; 욥기 29:4; 이사야 40:11, 현대인의 성경).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주님께서 주님의 섬기는 그리스도 중심된 일꾼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참고: 예레미야 33:22, 현대인의 성경).

혹시 지금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

혹시 지금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며

교회 청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참고: 예레미야 애가 5:12, 13, 현대인의 성경)

혹시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

혹시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우리의 악한 행위로 계속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예레미야 32:30, 현대인의 성경)

혹시 지금 우리는 ...

혹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참고: 예레미야 37:2-3, 현대인의 성경).

회개치 않는 교회를 흠으신 주님께서 ...

회개치 않는 교회를 흠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떼인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참고: 예레미야 31:10, 현대인의 성경).